

야부(屋部)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부시(節)의 特性

좌혜경*

1. 서언

오끼나와 나고시 야부 부락에서는 매년 음력 8월10일에 하찌가츠오도리(팔월용 八月踊) 행사가 치러진다. 이는 쌀의 풍작을 신(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 형태의 민속축제라 할 수 있다. 주로 제의(祭儀)와 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반주 음악과 음악의 가사인 부시(節) 등 무용과 음악, 문학의 종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전승되고 있다. 원래 야부지역 팔월용¹⁾은 무라오도리(村踊)로 정착되기 이전인 형태는 원시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제사의식이었으며, 제사에 참가하는 사람들 만의 것이었으나 그 후 우관신우두이(御冠船踊)²⁾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예능과 결부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屋部 八月踊) 130周年紀念會, 199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하찌가츠오도리를 우리말 표음으로 팔월용으로 쓰기로 한다.

2) 슈리(首里)에 왕부가 있던 시절 중국의 책봉사들을 환대했던 춤을 말한다.

현재도 신성(神聖)한 지역인 아사기(アサギ)에 모여서 행사의 시작을 신에 알리는 의례를 치른 다음 신녀(神女)에게 받치는 봉납무(奉納舞)가 치러지고 이후에 본격적인 예능 오도리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의례 뿐만 아니라 민간 민중들의 오락 연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풍요기원적인 의례형식이며 7월에 행해지는 봉오도리(盆踊) 에이사(エイサ)처럼 세시의 일환으로 음악과 무용, 연극적인 요소가 서로 결부된 연회행사로서 특징을 지닌다.

특히 팔월용은 1988년 현(縣)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행해지고 있다. 집단 협력에 의해 치러지므로 집단의 결속력이 강한데, 이러한 속성은 야부지역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긍지와 자부심, 전통성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1998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현 나고시 야부부락에서 팔월용을 현지조사했다. 직접 연행현장을 볼 수가 없어서 문헌과(屋部 八月踊り 130周年紀念會, 1996) 녹화된 비디오를 참고하고(屋部 八月踊り 130周年紀念會, 1995)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³⁾ 그리고 마침 98년 8월 7일에 나고시에서 주최하는 시마우타 페스티벌이 있어서 '순도'를 가지고 출연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축제 진행과정과, 불러지는 노래인 부시(節)를 통해서 야부사람들의 정체성과 팔월용의 민속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곧 '축제'라는 문화행위 속에서 행해지는 의례행위와 춤과 노래의 특성이 그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주요 면담자로는 사미센 연주자인 比嘉昇春(男, 1930年生)씨이며 比嘉元幸(男, 1928年生)씨는 기념제 실행위원장이고, 比嘉義光(男, 1927年生)는 춤에 출연하고 직접 지도하고 있는 분이다. 이방인을 맞아 조사에 도움을 준 이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준비과정과 종목

팔월용에 대한 자부심은 그들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정성과 노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행사 진행과 절차 혹은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 고정되어 있고, 전통화된 것을 지키고 이어나간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갖는 자긍심은 대단하다.

주된 행사일정은 3일간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달간을 준비한다. 준비인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가 참여하며, 직장 혹은 본 업무가 끝나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과정 곧 진행과 프로그램 설정과정을 살펴보면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준비가 그 해의 공연을 좌우하게 된다.

1) 준비과정

(1) 배역정하기: 밍크바이(面配)라고 하며 각 춤의 배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역 정하기는 춤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인물적 특성을 고려해서 구장(區長)과 춤의 단장, 교사, 지카타(地誼,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하는 사람), 부인회, 향사회,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배역을 정한다.

배역정하기는 주로 7월 15일 혹은 20일 이전에 정해지고 오후 8시가 넘어서 공민관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그 해의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단체장들은 아사기에 모여서 신에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게 된다.

(2) 연습: 배역이 정해진 다음 날부터 연습에 들어간다. 대체적으로 봉(盆, 음력 7월 15일) 2~3일 후에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는 데, 순서와 대본을 익히고 선생의 엄한 훈련을 받게된다. 음력 8월 1일 경부터는 무대 연습을 한다. 극인 경우 방을 따로 이용해서 연습한다.

(3) 유찌미기리(ユチミギリ): 팔월용의 바로 그날 아침 행해지는 거리 순례 때 풍우순(風雨順)이라고 써 있는 깃발이 거리를 통과하기 쉽게 길에 뺏은 나무가지를 치는 것을 말한다. 향상회(向上會)와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1주일 전 일요일을 정해서 길을 깨끗이 한다.

(4) 하리가따(張り方): 춤출 때 쓸 도구의 준비 및 헌 부분을 수리한다. 주로 유지회(有志會)가 중심이 되어 유찌미기리 날에 공민관에서 행한다.

(5) 마까나이(まかない): 음력 8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저녁과 유찌미기리와 하리가따 날의 점심 등 8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각 가정에서 7백엔씩을 모아서 마까나이 비용으로 한다. 부인회가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매식 대개 70명 분을 준비한다.

(6) 메즈꾸미(メ-ズクミ): 음력 8월 7일은 리허설을 행하며, 이를 메즈꾸미라고 한다. 이번 공개할 프로그램 그대로 의상과 도구를 갖추어서 시연(試演)을 해보고 상연시간 등을 계산해본다. 방송과 조명도 그대로 준비하고 의상을 다림질하여 갖추어둔다.

(7) 안내 프로그램 작성: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송부한다. 정일(正日)에는 지역민이 참관하고 그 이튿날에는 지역주민 외의 사람들이 관람하기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안내한다. 프로그램 순서와 출연자의 명단이 있는 프로그램은 그날 당일 배부한다.

(8) 주꾸미(ズクミ): 메즈꾸미가 끝나면 반성회를 가지고, 교사로 부터 주의 사항과 다음날 본 공연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8월 8일의 공연을 행한다. 시간은 오후 7시, 그리고 이날은 미수(米壽, 88세) 축일을 합동으로 한다. 그날부터 의상, 화장, 머리모양, 또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다. 공연이 끝나면 반성회를 가져서 본 날의 행사에 대한 주의사항, 방송, 조명 등을 확인하여 행한다. 교사들의 지적사항은 다음날 8월 9일 공연에 시정하여 고쳐 놓지않으면 안된다.

(9) 당일(正日): 팔월용이 행해지는 날이다. 오후 3시부터 거리 순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화장, 의상, 머리를 꾸민다. 또한

오후 2시 경 신인(神人)들은 각자의 우까마(ウカマ, 불의 신)을 배알하고 각자가 신의상을 입고 아사기에 모인다. 우선 사군(サグン)신에 가서 기원을 하고 아사기에 돌아와서 출연자의 지도가 끝날 때 짚 거리순례를 출발한다.

(10) 거리순례: 오후 3시 쯤 향사회가 풍우순(風雨順)이라고 써있는 깃발을 아사기 마당의 가운데 세우고 오도리 단장이 출발 인사 후 도섬절(稻摺節)을 추고 거리순례를 한다. 약 300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행을 하는데, 나무 밑을 지나 야부소 학교, 구고(久護)의 아지마(アジマ) 부이찌문(大-門)의 아지마, 나고(名護)의 아지마에서 도섬절(稻摺節)을 추어 풍년을 축복한다. 거리 순례는 약 1시간 반이 걸린다. 그 사이 신인(神人)들은 아사기에서 거리 순례행렬의 도착을 기다린다. 아사기에 도착 후 다시 <稻摺節>을 춘다. 구장이 끝나는 인사말로 거리순례는 끝난다. 여기서 신성한 지역인 아사기에서 <稻摺節>을 춤으로서 풍년이 들어 곡식을 거두는 행위를 춤을 통해서 나타낸다.

(11) 어원용(御願踊): 거리를 순례한 후 30분 경과한 다음에 신인을 무대 앞에 모셔다 어원용을 봉납한다. 장자의 대주(長者의 大主)의 가자디후, 구티이부시(コテイ節)와 카슈오도리(若衆踊り) 도섬절(稻摺節)인데, 이 춤이 끝나면 신인들은 의상을 벗고서 각자의 우까마에 가서 어원(御願)이 끝났음을 알린다. 무대는 다시 오후 7시부터 막이 오르게된다. 이 어원용(御願踊)을 받치는 날은 그날에 한한다. 앞의 세 가지를 제외한 본 공연은 회영절(喜榮節)부터 시작되며 끝나는 시간은 즈꾸미와 우까리(ウカリ) 날보다 30분 빨리 끝나는데 즉 11시경 관객이 돌아간 후에 반성회가 행해진다.

(12) 우까리(ウカリ): 음력 8월 11일 본 날의 프로그램 그대로 공연한다.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후 7시 30분 경에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오후 11시 30분 정도가 된다. 모든 공연이 끝나면 아사기 정원에 깃발을 세우고 출연자, 구민이 모

두 모여서 기를 혼든다. 향상회, 청년회가 기를 흔들면서 팔월용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여 기(旗)는 동쪽을 향하여 조용하게 눕힌다. 그날도 반성회가 행해지는 데, 교사와 단장의 인사를 듣고 특히 성공을 축하하며 오도리 단원 전부가 “밤이 밝도록,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마시자고 한다.

(13) 우까리젠카이(ウカリゼンカイ): 오도리가 끝난 약 1주일 후 오도리 단체의 회계 집계는 거의 끝날 무렵 ‘분산회’가 행해진다. 본 년도의 오도리 단체의 해산이다. 각 교사 혹은 단장, 구장들의 총평을 듣고 교사와 단체에 사례금을 건넨다. 또 각 단체의 대표자의 인사말과 감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내년의 구미오도리(組踊)의 종목이 결정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 부락민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년의 행사를 치르는 것은 완전한 계획과 각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능을 위한 부락민의 준비와 진행은 그 자체가 관습화되어 있다. 공동의 의식(儀式)이나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종목

팔월용의 프로그램 종목은 무용 혹은 부시(節)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특히 해마다 이 종목을 결정하여 연습에 임하게 되는데, 그 해의 풍년오도리(豊年踊) 종목 중에서 ‘장자의 대주’(長子の大主), ‘회영절’(喜榮節) ‘순도’(スンド-) 등은 고정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오도리 이외에 극(狂言), 부인회, 노인회의 오도리가 첨가되고 22-23편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구성이 재편되고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슈리, 나하 등에서 행해지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 많으나, 야부적 독특성을 지니고 야부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디마뉘(手間戸)⁴⁾, 회영절(喜榮節), 만수주(萬壽主)가 있다.

전체 공연시간은 4~5시간 정도이다.

각 종목과 부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자(長者)의 대주(大主)

여기서 장자는 120세 되는 노인으로 장수와 부귀, 자손번창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우로(雨露)의 혜택을 주고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오게 한다. 하얀 백발과 흰수염의 노인이 자손들을 데리고 들에 나오면 식물이 고개를 들고 자손들이 술과 무용과 음악을 바친다. 연극적인 부분이 춤과 대사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인간의 이상(理想)을 나타내었으므로 어원용(御願踊)의 일종이다. 이 <장자의 대주>는 일본 다른 지역에도 있고 수리, 나하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부른다고 한다.

여기에서 불리는 부시는 가자디후⁵⁾<かぎやで 風,> 구두치<口説/二才(一, 二)>인데 특히 가자디후<かぎやで 風>의 내용을 보면 그 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오늘의 이 기쁨을 무엇에 비길까요, 방금 봉우리 진꽃이 이슬을 머금고 활짝 핀 심정이어요”

(2) 구티이부시<コテイ節>

어원용(御願踊)의 일종이며, 와카슈오도리(若衆踊り)라고도 한다. 젊은이들의 춤이면서 생명력이 약동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한 막(幕)을 열어 춤이 시작됨을 축하하는 축의무용(祝儀舞踊)이다. 젊은이와 부채의 생동감이 어우러지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춤이다. 소나무의 절개(節概)와 그러면서도 봄이 되면 더 푸른 생명력을 노래한다.

4) 티마튜(手間戸)는 야부의 대표적인 오도리로 알려지고 있는 데, 슈리,나하의 '정간당(汀間當)'과 비슷하다고 하나 그 정서면에서는 야부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5) 오끼나와 방언으로 표기함.

“반석위의 소나무는 색이 변하는 일도 없지마는
어느 때 봄이 되면 색도 더욱 푸르고녀”

(3) 도섭절 <稻摺節>

농사행위를 춤으로 표현한 무용이다. 아사기에서나 혹은 나고, 구고, 부이찌문의 아지마에서 추는 춤으로 풍요기원의 행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춤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춤 동작은 쌀을 거두어들여서 장만하고 타작하고, 쌀을 고르는 행위가 주가 된다. 곧 눈과 같은 쌀의 풍요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적인 행위가 주가 된다. 도섭절<稻摺節>은 오도리 명칭이기도 하며 노래 명칭이기도 하다. 춤 뿐만아니라 연극적인 대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노래와 달리 노동요적인 성격을 지닌다.

(4) 희영절 <喜榮節>

젊은이들이 특별한 도구없이 맨손으로 추는 춤으로 야부에만 남아 있다고 한다. 중국의 고전, 소학(小學)에서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등 오경(五經)을 읽어서 슈리 왕부(王府)에 봉공(奉公)하자는 내용이다.

“소학부터 읽어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읽어(후렴)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 육예(六藝)를 익히고 슈리에 봉공하자(후렴)”

(5) 만수주<萬壽主>

에이사의 부시로 사용되고 있는 구고만수주<久高万壽主節>와 동일하다. 두 사람이 오른 손에 방패를 들고 무사적(武士的)인 춤을 춘다. 이 방패는 창과 총을 막는 무예 도구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춤이 추어지나 이 춤은 야부만의 독특한 춤이다. 노래의 내용은 구고만수주의 용장(勇壯)스런 모습과 그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칭송의

찬가이다.

(6) 하마치두리(浜千鳥)

여수(旅愁)의 정서를 가진 사람을 물가의 새(지쥬야)로 비유하였다. 창작자가 있는 노래로서 명치(明治), 대정(大正)시대의 지거역자(芝居役者) 옥성성중(玉城盛重)이라고 알려졌다. 고향을 떠난 여행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양친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신체의 움직임이 아주 아름답고 오끼나와 사람들의 혼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최고의 걸작이다. 특히 오끼나와식 가발과 의상, 흰장갑, 검색의 가즈리, 무용수들의 요염한 춤동작이 마치 애수를 지닌 물가의 새와 같은 모습을 한다.

“바닷가에 묵고 풀잎을 베게 삼아서 누웠건만
포근한 부모님 곁이 꿈에도 잊혀지지 않네”

(7) 누부이구두치(上り口説)

이 노래는 유구왕부가 1609년 이후 일본 사츠마한(薩摩藩)의 지배하에 있을 때, 슈리에서 사츠마 산천항까지 뱃 여행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다. 류큐의 남성들은 정치적 임무, 또는 공무로 지금의 가고시마인 사쓰마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슈리 관음당을 출발하여 긴 항해를 떠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남성 무용수 둘이 부채를 들고 씩씩한 남성적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춤이다. 가사의 내용은 뱃길 떠나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데, 이별의 정서가 예능적으로 승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머나먼 길 떠나기에 앞서 관음당에 가서
천수관음보살에 기도를 하고 황금홀을 들고서 길을 떠난다.”

(8) 한타마(はんたま)

두 여자가 추는 춤이다. 장은납절(長恩納節)은 샷갓에 끼운 막대를 들고 춤을 추다가 본용(本踊)인 구미한타마에부시(久米はんたま前節)에서는 막대는 놓아두고 샷갓 만을 오른손으로 들고 추는 춤이다. 이러한 춤의 형태는 원래 반도(半島) 일원에 분포되어 있었다. 장은납절(長恩納節)은 18세기에 은납촌(恩納村)에 살았던 여류가인(女流歌人) 온나나비가 지었다는 노래로 유명하다

(9) 하나오도리(花踊り)

들이나 천변(川邊)에서 꽃놀이 유희장면을 연상시키는 춤이다. 스키절(すき節), 백나주천절(白瀨走川節), 충순절(仲順節)로 구성되고 있는 데, 노래 역시도 꽃놀이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화환과 부채를 들고서 추는 소도구의 사용이 특이하다.

스키절(すき節)은

“이른 봄이 되면 마음이 설레네
꽃도 더욱 참을 수 없어 봉우리를 내미네”

백나주천절(白瀨走川節)인 경우는 백나주천 물가에 꽃을 띄워보내며 온갖 님 생각을 내어 던지거나 붉은실, 흰실에 꿰 꽃의 정경을 묘사한다. 충순절(仲順節)에서도 헤어져 있어도 서로는 가연(佳緣)이 되기를 바라면서 실에 꿰 꽃을 흘뜨려도 멀어지지 않기를 … 하고 노래한다.

(10) 메누하마요나하라(前之浜那原)

이는 나하항 북안에 있는 메누하마(前之浜)와 요나하라부시(那原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친구를 부르는 소리인 찌리찌리찌리찌리(ちりちりちりちり) 뒤에 후렴이 따른다. ‘메누하마’

라는 모래톱에 흩어져 날아오는 천조(天鳥)가 자기 짝을 찾는 모습에 비유되고, 이 곳은 배의 노젓는 소리가 들리며, 물을 건너온 배가 도착하는 곳 노아소비(野遊), 모아소비(毛遊)의 장소가 된다. '요나하라'는 야유(夜遊)의 장소로 유명하다. 황금 빛 삼나무 숲과 하얀 모래 백사장에서 춤을 추며 노는 기쁨이 표현된다. 날이 밝아서 태양이 뜰 때까지 손과 발을 박자에 맞추어 노는 선남선녀의 모습이 선명하다. 하나오도리처럼 유희적 성격이 강하다.

“메누하마 바닷가에 날라온 물떼새의
 짝부르는 소리가 찌리찌리찌리찌리”

(11) 티마튜(手間戸)

야부 팔월용의 대표적인 춤으로서 130년 기념탑에도 조각되어 새겨져 있는 티마튜부시(手間戸節)외에 진뽀우라부시(ちんぼうら節) 등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도구의 사용 없이 손으로만 추는 수용(手踊)이고 후자는 부채를 이용하는 선용(扇踊)의 성격을 띤다.

여자 무용수 2인에 의해 추어지며 의상도 왕부시대 때 신의 의상이면서 유희의상이기도 한 스친 듯 흰무늬가 있는 감색의 고풍스런 옷을 입는다. 티마튜부시(手間戸節)의 2절을 보면

“님과 이별한 후에 저녁 무렵과 새벽이 오면
 떠오르는 님의 얼굴 잊을 수 없어
 생각이 끊이질 않아 스멀스멀 다가온다”

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애뜻하게 표현되고 있다.

(12) 양작전(揚作田)

두 남자 무용수가 손에는 전국(戰國)시대의 무장(武將)이 들었던 채배(采配, 싸움터에서 대장이 지녔던 지휘채)를 흔들며 지휘봉으로

삼고 웅장한 곡에 맞추어서 춤을 춘다. 찌꾸덴부시〈作田節〉를 올린다는 뜻으로 명칭이 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또 구티이부시〈コテイ節〉를 노래하기도 했다.

(13) 요쓰다케(四つ竹)

하나후〈花風節〉에서는 태평성대와 오곡풍양(五穀豐穰)을 기원하는 가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평안한 거리에 음악소리와 절구소리가 끊이지 않아 눈처럼 흰 곡식이 쏟아져 나온다는 가사로 구성되고 있다. 전형적인 풍년기원의 예축의례(禮祝儀禮)로 네 개의 대나무로 만든 케스터네츠를 가지고 서로가 박자를 맞추어 춤을 춘다.

대나무는 단순하게 리듬을 맞추는 도구로서 만이 아니라 풍작과 유가후(世果報)를 가져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에이사 때도 춘다.

“울리고 울리고 또 울려라
요쓰다케를 오늘 경사자리에서 마음껏 즐기련다”

(14) 오복(五福)의 무(舞)

〈송죽매학구(松竹梅鶴龜)〉는 소나무의 절개인 ‘언제도 변함 없는 소나무와 같이’〈양작전절〉, 대나무〈동리절(東里節)〉의 “마음은 언젠나 곧은 대처럼”〈적전화풍절赤田花風節〉에서 ‘매화꽃의 냄새와 같이’ 식물이 상징하는 절개를 노래한다. ‘학은 천년’의 〈흑도절(黑島節)〉, ‘거북이는 만년’〈하원절(下原節)〉을 노래한다. 위 다섯 가지를 나타내는 모형을 만들어 머리 위에 장식하고 춤을 춘다. 그리고 이외에 비의 혜택을 노래한 〈야우절(夜雨節)〉과 유희적 성격이 강한〈부도절(浮島節)〉로 구성된다.

“바위를 안은 저 소나무

“씩이 터서 얼마를 지났기에 저리 아름다울까”

(15) 가시카키(かせかけ)

양손에 실꾸리와 얼레를 잡고 천을 짜는 무용을 통하여 여성들의 노동작업을 예능화하였다. <우나절(于瀨節)>, <칠척절(七尺節)>, <백명절(百名節)>로 구성되며 객지에 나간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아비를 그리는 내용을 노래한다. 일반적으로 난해(難解)한 오기나와의 온나오도리(女踊)중에서 가장 알기 쉬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얼레에 굵고 가는 실을 감아
넘게 날개 같은 멋진 옷을 짜드리리”

(16) 다카테라만자이(高平良萬才)

이 춤은 조용(組踊) ‘만재적토(万才敵討)’ 중에서 형인 자나누시(謝名子)와 아우 게이운(慶雲)의 춤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한다. 이 춤은 대정(大正) 말기 마을 출신인 히가덕원(比喜徳元)이 하와이에 이주했을 당시 배우고 익힌 것을 마을에 전한 것으로 만자이구두치(万才口説), 오혼샤리부시(おほんしゃり節), 사인수루부시(さいんする節)로 구성된다.

머리에 말머리 모양의 모자를 쓰는데, 슈리, 나하에서는 사자모양과 말모양을 한다.

“초립을 쓰고 얼굴을 가리며
남 모르게 길을 떠나 마을 동네를 차례로 지나간다.”

(17) <가나요>(カナヨ-),

카나요는 사랑하는 사람 곧 연인을 뜻하는 대표적인 관용어이다.

절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열을 잊고 싶어하는 사무친 화자의 심정이 내보인다. 템포가 아주 빠른 음악이며, 춤출 때 의상이 특이하다.

“님모습 떠오르면 안절부절 못해
시름을 잊으러 놀러가자”

(18) 구다이구두치(下り口説)

(7)번의 누부이구두치(上り口説)가 수리에서 사츠마한(薩摩)까지 가는 도중의 산천, 혹은 항구의 풍경을 노래했다면 이 노래는 반대로 사츠마한에서 수리, 나하로 가는 산천의 풍경을 노래했다. 춤추거나 혹은 북을 치는 도중에

‘히야 쫓따 쫓따 쫓따’의 음이 들어가는 것이 재미있다.

“나그네 길떠난 것도 끝나보면 어제 오늘인데
어느덧 가을 바람 부는구나”

(19) 순도(スンド)

이 춤은 어관선용(御冠船踊)에서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여 어단용(御段踊)이라고 부른다. 내용은 슈리, 나하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야부의 것은 꽤 해학적이다. 냉정한 마음을 지니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미녀와 마음 착하고 성실한 추녀를 등장시키는 데 미녀에 대해 냉소적으로 풍자한다. 순도는 손다우부시(しよんだう節)에 나타난 슈둔(諸屯)해변의 슈둔여동(諸屯女童)을 지칭하는 것 같다. 눈웃음 치는 여성과, 눈과 같이 하얀 이빨을 지닌 그녀를 밤이되면 자신의 입에 넣고 싶다는 내용이다. 소레칸부시(それかん節), 야리코노시부시(やりこのし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를 노래한다.

손다우부시(しよんだう節)

“슈둔의 길가 바닷가에 너울거리는 물결
마을 처녀의 웃는 얼굴, 흰 이빨 닳았네”

소레칸부시(それかん節)

“머릿기름 사주세요 비녀 사주세요
변심한 사람 앞에서 잔뜩 멋을 내자꾸요
아단나무도 가시로 옷을 걸어 붙는데,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손을 잡아 붙들어 주세요”

야리코노시부시(やりこのし節)

“함께 놀고 싶은 마음 태산같지만
네 냄새가 역하니 따로 놀자꾸나
대수롭지 않은 얼굴 곱다고 자랑마라
남녀 인연이 모든 세상의 도리인데”

이러한 늘상 행해지는 종목 외에도 가극이 상연되고 부인회의 오도리가 참여하게 된다.

3. 부시(節)의 특성(特性)

팔월용의 음악은 타이코(太鼓), 삼선(三線), 고토(ゴト)에 의해 주로 구성된다. 각 종목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며 불려지는 부시 또한 다르다. 특히 부시는 장면이 있는 시(詩)와 같은 것으로, 음악과 함께 불려지는 데, 춤의 진행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인간 감정의 정점 혹은 극치의 정서 부분이나 혹은 신을 향한 기원 부분 등 서술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표출하여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부시에 나타난 가사의 특성을 보면 기원 혹은 송축의 내용인 축의적(祝儀的) 성격이 강한 것과 오락이나 연희, 남녀간의 사랑 혹은 연

애를 주된 제재로 한 서정성이 강한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종목에 따른 부시(節)의 특성을 구분해보면 平成 7년(1995년의 경우)

가. 송축, 기원

- 長者의 大主- 가자디후(かぎやで風,⁶⁾ 구두치(口説/二才(一, 二))
- 구타이부시(コテイ節)-와카슈 오도리(若衆踊り)
- 〈稻摺節〉
- 요쓰다케(四つ竹)- 하나후(花風節),
- 五福의 舞-〈揚作田節〉, 〈東里節〉, 〈赤田花風節〉, 〈黒島節〉, 〈下原節〉, 〈夜雨節〉, 〈浮島節〉

나. 칭송, 교훈

- 〈喜榮節〉,
- 萬壽主-〈久高万壽主節〉
- 揚作田

다. 오락, 예능

- 데카다라만자이(高平良萬才)- 만자이구두치(万才口説), 오혼샤리부시(おほんしゃり節), 사인수루부시(さいんする節)
- はんたま-〈長恩納節〉, 〈久米はんたま前節〉
 - 누부이구두치(上り口説),
 - 구다이구두치(下り口説),

라. 유희,

- 花踊り- 스키절(すき節), 〈白瀬走川節〉, 〈仲順節〉
- 메누하마, 여나하라(前之浜 那原)-〈前之浜〉, 〈那原節〉

마. 사랑 혹은 연애

6) 節의 표시는〈 〉로 하였음, 종목과 구분하기 위함임.

- 〈가나요〉(カナヨ-),
- 가시카키(かせかけ)-〈于瀨節〉, 〈七尺節〉, 〈百名節〉
- 하마치두리→〈浜千鳥〉,
- 순도(スンド-)- 손다우부시(しよんだう節), 소레칸부시(それかん節), 야리코노시부시(やりこのし節)
- 디마튜(手間戸)-〈手間戸節〉, 진뽀우라부시(ちんぼうら節)

위에서 살펴본 절의 특성을 종합하면 신에 대해 송축하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의 것, 무사의 용맹성을 찬양하고 소나무의 지조(志操) 혹은 절개(節概)를 칭송하면서,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 오락적(娛樂的)이면서도 예능성이 강한 것과, 유희적 요소가 강한 것이 많은데,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꽃놀이의 장면, 혹은 유희의 장소를 기억하거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노래들이다.

1) 송축과 기원의 주술성

주술적, 신앙적인 요소는 그 집단을 결속하거나, 행사의 전통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원용(御願踊)인 축원무(祝願舞)에서 이러한 성격은 뚜렷이 나타난다. 축의무라 고도하는 장수와 부, 자손번영을 기원하는 '장자의 대주' 중에 부르는 가기야데 풍(かぎやで風)은 꽃이 핀 상징성을 통해서 그날의 기쁨을 표현한다. '어전풍(御前風)' 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국왕 앞에서 연주되는 곡이었다. 이어서 불려지는 구두치(口説)에서는 쌀의 풍요를,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 부채를 가지고 생명감을 표현하면서 소나무의 늘 푸르름을 노래한 축의무 구티이부시(コテイ節), 쌀을 거두어 들고 타작의 과정을 표현한 도섭절(稻摺節)도 이러한 성격을 띤다. 이 도섭절(稻摺節)은 쌀을 수확하는 감사의례, 예축예능으로서 지역의 생활과 밀착되면서 지역주민에 의해 전대로부터 매년 관습적으로 전승시켜 온 것으로 꽤

오래된 것이다(仲宗根幸市 1998: 64). 특히 이 세 가지 어원용은 반드시 행사 시작 맨 처음에 시작되며, 기원적인 요소가 강해서 신녀(神女)들에게 봉납한다는 봉납무용으로 신앙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송축, 기원의 특성은 오복의 무(五福의 舞)나 요츠다케(四つ竹)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요츠다케의 〈화풍절(花風節)〉에서는 번창하고 평안한 거리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와 눈과 같은 쌀의 풍작을 기원한다. 또한 오복의 무에서는 송(松), 죽(竹), 매(梅), 학(鶴), 구(龜)를 차용해서 절개(節概), 의리(義理), 지조(志操), 장수(長壽)를 기원한다.

이러한 노래의 신앙과 연결된 주술적인 요소는 종목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오도리 자체에 대한 인식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제사의식(祭祀儀式)이 중지되었을 당시(明治 말경)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하였다는 점과 그것의 증단으로 인해 여러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노인들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들면 마을 지도자나 춤의 지도자가 젊어서 급사했다거나 혹은 8월 10일이 되면 기두(旗頭)자체가 마을을 순례했다던가, 혹은 고양이 불을 머금고 우다키(御獄)를 출입한다던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춤 지도자는 과거에는 대부분 장남이었고 1945년 전에는 여성들은 참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구전되는 이야기 혹은 사실에 나타난 신앙적 요소는 팔월용의 주술성과 관련된다 고 하겠다.

순도(スンド-)에는 추남을 상징하는 가면(假面)이 등장하는데, 이 가면을 쓴 사람은 마을을 순례할 때 앞장을 서서 교통정리를 한다.(特集, 八月踊り, あじみち 20号) 곧 가면의 주술적 효력은 장소 혹은 길을 정화한다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유희와 연애의 서정성

팔월용의 전승력은 주술적인 성격과 더불어 서정가(抒情歌)의 내

용과 오락적인 흥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음당(觀音堂) 혹은 천수관음(千手觀音)이 나오고 염불가(念佛歌)나 미륵(彌勒)에의 기원을 노래하는 축복의 성격을 띤 구두치(口說)나 누부이구두치(上り口說) 등에 보여지는 것도 오락성과 함께 개인적 정서가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자연찬미, 연안항해(沿岸航海)의 여흥(餘興)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하나오도리(花踊り), 마에하마요나하라(前之浜 那原)의 부시 속에는 꽃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개인의 정서나 백나주천(白瀨走川) 냇가에서 행해지던 꽃놀이의 정경, 그리고 마에하마(前之浜)와 요나하라(那原)에서의 야유(野遊)의 장면 속에서는 유희와 함께 남녀 사랑의 정서가 공통적으로 배어난다. 이러한 노래들은 특히 오기나와에는 노동요보다 연가(戀歌)가 압도적으로 많다(仲宗根幸市, 1997: 34)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나 사랑, 혹은 연애 등의 서정을 노래한 부시들은 전승력에 일익을 담당한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배역이 정해지고, 서로가 마음에 맞는 배역을 맡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전승에 대한 집착은 찾을 수 있다. 젊은 이들은 불타는 사랑의 정열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 특히 사랑과 이별의 정서나 혹은 증오의 정서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야부를 대표하고 있는 티마튜(手間戸)의 디마튜부시(手間戸節)에서도 옛날의 모아소비(毛遊), 유아소비(夜遊)의 정경이 묘사되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모래톱에서 자유분방하게 놀며, 노래 부르던 정서가 두드러진다.(仲宗根幸市, 1997: 114-118) 이러한 아소비 장소가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으로는 순도(スンド-)에 나타나는 '소둔장빈(諸鈍長浜)' 과 '전지빈겸구원(前之浜兼久原)' 이다. 이외의 지역으로 '우지내해(羽地内海)', '대도해협(大島海峽)' 등이 유명하다.(仲宗根幸市, 1998: 94.) 야부 근처에 있는 '전지빈겸구원' 은 야부만에 접한 장소로 아름다운 모래톱이 있어서(名護市教育委員會, 1986: 47) 그곳에서 놀이를 통해 맺어진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던 남녀의 애뜻한 사

랑의 산실(産室)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산출하게 된 장소인 하라(原)나 하마(浜) 등을 배경으로 서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靑山洋二, 1997)

특히 사랑의 대상으로 비유된 것은 빈천조(浜千鳥)이다. 남녀 사랑의 대상을 상징하면서도 회상을 일으키는 매개물로서 등장한다. 후렴구의 새우는 소리의 묘사는 격정적(激情的)이기 조차하다. 카나요 <カナヨ>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일한 정서를 느낄수 있다.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슌도(スンド-)이다. 세 가지의 부시로 구성되고 있는 데 추녀(醜女)와 모래처럼 피부가 흰 미녀를 등장시켜 서로 상대적 신분의 인물을 통해 대칭적으로 나타낸다. 슈둔여동(諸屯女童), 그녀에 대한 애정, 연모와 호색성(好色性)이 나타나 젊은 남녀의 춘정(春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미녀의 내면(內面)인 마음이 곱지 않다거나 혹은 정숙치 못함을 비꼬거나, 얼굴은 미녀이나 가난하고 천박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 상대적으로 가면을 쓴 추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교겐(狂言)형식으로 묘사된다. 암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애매어(曖昧語)가 상징화되어 독자나 관객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데 이는 작자나 극작가의 비범한 재능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照屋寛善, 1995: 232)

4. 결어

팔월용은 오기나와 혹은 아마미지역에서 추는 춤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행사의 일환이다. 야부지역에서는 8월 10일에 행해지는 춤을 중심으로 한 예능 전반을 무대화하고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춤과 음악, 문학의 종합예능을 전수하고 있다.

기원 행사의 민속 신앙적 의의와 함께, 일상 속에서 일정한 비밀상의 시기를 마련하여 해마다 회기적이고 반복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삶의 에너지 충전과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를 갖게 했다.

곧 일반적인 민속축제의 특성인 신앙성(信仰性), 오락성(娛樂性), 집단성(集團性), 협동성(協同性)의 네 가지 면모를 그대로 갖춘 셈이다. 부락단체가 협동해서 공동에 의한 생산과 문화적 수용이 가능하고 축제화가 가능했다.

팔월용의 민속적, 문화재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문화재의 지정이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한 문화 유형을 중심으로 단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협동적으로 행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는 지역 문화유형의 단체별·유형별 지정이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그것은 지역민의 단체심을 증용할 수가 있어서 지속적인 전승과 보존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공동의 전통에 대한 향수와 단체 속에 소속하는 개인의 위치와 소속감, 집단의 중요성 등이 그들 의식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용충당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官)의 지원을 받지 않고 부락민 스스로가 해결, 행사를 지속적으로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감을 이미 지화 해나갈 수가 있었다. 그 저력은 야부민으로서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무려 130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옛 것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다는 전통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이다.

또한 유희적 색채는 민요 중에서 노동요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향유자들 정서에 호소력을 불러 낼 수가 있었다. 또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희적인 흥을 이끌어 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춤동작의 다양성, 음악적으로는 2박자의 유희요로서의 흥겨움과 더불어 종합 예능적 특성으로 집단오락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의 정서를 갖도록한다.

마을 사람들의 신앙성 역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오도리의 의상을 아사기에 있는 성스러운 방에 보존한다거나 신에

받치는 제사의식과 함께 한다거나 봉납무(奉納舞)가 먼저 치러진다거나 하는 신앙적 주술성은 오도리 전승력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팔월용의 세시적 성격은 농사의 풍등을 신에 감사하는 10월에 치러지고 있어서 절기(節氣)에 따른 축제와 의례 두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사진행을 돕고 청년회를 중심으로 부인회, 향사회, 유지회가 참여하여 '밍크바이(ミンクバイ)에서 '본번(本番)'을 거쳐 '분산회'까지 치러지는 과정은 협동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그 근거에는 작품이 가지는 예술성 또한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팔월용은 생산층과 소비를 담당하는 층이 서로 즐기고 향유하여 민간 고전예능적 수준의 확립을 이룩했다. 비록 다른 지역의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개작하면서 약간의 변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신들의 전통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수준을 획득한 것이다.

참고문헌

오키나와현, 상공노동부 관광문화국 문화진흥과,
1996 『류큐무용』

宮城眞治

1987 『その村と家と人と』, 오키나와: 名護市

山原 ざっし, “あっちや”- 第6, 오키나와 : 山原
特集, 屋部のエイサー-, あじみち 19, 오키나와: 屋部
特集, 八月踊り, あじみち, 7, 20, 오키나와: 屋部

屋部 八月踊り 130周年 紀念會

1995 비디오 테이프.

1996 『屋部 八月踊り 130周年記念誌』, 111-126, 오키나와: 屋部

仲宗根幸市

1997 『しまうた 流れ』: 34, 114-118, 오키나와: ポ-ダ-インク.

1998 『しまうた 追いかけて』: 64, 94, 오키나와: ポ-ダ-インク.

青山洋二,

1997 『流歌の里めぐり』, 오키나와: 郷土出版.

名護市教育委員會,

1986 名護市の小字: 47, 오키나와: 名護市.

照屋寛善,

1995 『沖繩の古典藝能』: 232, 東京: 第一書房.

그림 1. 오끼나와 나고시 야부 부락 아사기(アサギ)에 불의신을 모신 히누칸.

그림 2. 야부의 대표적인 팔월용 부시 중 하나인 티마류(手間戸) 상징탑.

그림 3. 춤을 출 때 쓸 가면과 의상, 가발, 소도구 등을 간직해 두는 곳.

그림 4. 악기 연주자인 지카타(地謠)가 공연에 앞서 의상을 입고 준비하는 모습.
그 마을의 대표적인 사미센 연주자인 比嘉昇春 씨(男, 1930年生)

그림 5. 순도(순도-)의 한 장면.

The Meaning of the Passage in Hazzikatsuodori of Yabu

Choa Hye Kyung

The festival called Hazzikatsuodori is held in the village Yabu, Nago city, Okinawa prefecture on the 10th day of the eighth lunar month every year. The festival can be said a kind of folk festival that assumes the form of what is called Thanksgiving Day thanking gods for a good harvest. It has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the form of a composite art, especially focusing on ritual and dance.

I made a spot investigation into the event of Hazzikatsuodori in Yabu, Nago city, Okinawa prefecture on October 2nd~13th, 1998. Hazzikatsuodori which is held every year has been designated as the Invisible Cultural Assets of Okinawa prefecture since 1988. Since this festival is performed through the villagers' cooperation, it has inculcated the villagers with the pride on their culture in all ages. For a successful performance the villagers scrupulously make a plan for the festival as usual and take part in it actively. Through such a customary group event they has stabilized their membership and identity.

Its main repertories are a traditional folk dance but other repertories such as drama, and so on are added to it. Its main folk dance is composed of about 23 pieces which is rearranged every year but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previous pieces. They took its most repertories out of the traditional folk dance that has been played in such places as Shuri and Naha but a part

of its repertoires is played only in Yabu. The performance usually has a run of about 4 ~ 5 hours.

The music rendered to the dance is played largely by big drum, Koto, and Shamisen. Its words as well as its music varies depending upon the contents of each repertoires. The words of Hazzikatsuodori almost like poetry which contains vivid scenes are recited in concert with music, which represents human being's various emotions.

The words of Hazzikatsuodori are divided into two kinds according to its character: the ritual character that expresses invocation or praise and the lyrical character that largely expresses an entertainment, a play, and a love or an affection between men and women. The incantatory or religious elements that are comprised in the words play the predominant role which not only strengthens the unity of the community but also maintains the traditional quality of the festival. The lyrical contents or relaxant elements also plays the important part in handing down it.

Hazzikatsuodori, therefore, meets four characteristics — faith, entertainment, group consciousness, and cooperation — that we often attribute to it. It enables the villagers not only to work and produce together but also to acknowledge their common culture and then to celebrate their own festival together. That is why they always take recognition of the tradition, a deep attachment for their village, and group consciousness. As a result of it, Hazzikatsuodori which contains artistic quality at its basis arrives at a level of classical art that producers and consumers enjoy together.